

1. 대중사업 - 구체적인 사업 사업 별로 할 필요는 없을 듯 싶구요, 하나의 맥으로 대체적인 어려움이나, 계승해야 할 우리 자주경희 여학생회의 대중사업 작풍을 생각해오세요

학내에서 여성주의 문화를 접하고 구현하는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은 더욱 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사업에 있어서는 더 노력해야 할 부분만 일단 떠오르는군요.

1) 학우들의 관심을 파악하고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

총여학생회가 가장 취약한 부분은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집행부 몇 몇의 관심사로만 이루어진 대중사업은 당연히 학우들과 함께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터넷 여론 사업과 화장실 통신, 다양한 방법의 설문 등 기본적인 것만 꾸준히 잘해내도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여학생회에서 하는 것이라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동적으로(!) 알려 낼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여 사업을 진행해도 학우들이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학생처만 알뿐이죠. ^^;; 또는 몇몇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간부만 알거나...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만큼, 여론사업은 튼튼한 주체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전일을 확실히 나누든지(예 - 대자보, 플랑은 선전부장과 집행부/유인물과 화장실 통신은 총여짱/인터넷선전은 부총여짱....), 자신이 한 사업은 각자 바로바로 알려내는 등의 방법을 서로 약속해서 지켜야 합니다.

2) 일상사업이 꾸준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

학우들이 총여의 활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굵직굵직한 대중사업이 핵심이 아니라 생활에서 보여지는 일상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여론사업이고, 여론사업의 피드백이 잘 이루어진다면 일상사업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생활문화운동으로 술자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강제로 술 먹이지 않기, 술 취한 친구 잘 챙겨주기,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돌아보기 등), 담배 피는 여학우들의 이야기 등을 알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생회실에 생리통 약 비치하기는 어떨까요? 과 여학생회가 없어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여학생 휴게실은 일상사업의 가장 첫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학우들은 여학생 휴게실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지 못하고, '여자는 약하니까' 또는 '나도 쉬고 싶은데' 정도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휴게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에피소드(?)를 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정도 남학우에게도 개방하여 영화를 틀고 함께 토론(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a)하거나, 공개 성교육 강연(좀 파격적으로 포르노를 틀고 이야기한다든가...여성학강의에 리포트(ㅋㅋ)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을 하는 것이죠. 남학우들이 여자친구와 함께 여학생휴게실을 찾고 거기서 작은 것이라도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학생 휴게실이 이쁨 받는데 소중한 성과가 될 것 같습니다.

3) 대동한마당 등의 커다란 대중사업 준비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상사업이 꾸준한 성실함을 요구한다면, 대동한마당 등의 사업은 하나를 제대로 해내려면 총여학생회 전체의 치밀한 계획과 집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 사업방식은

없애나갑시다. 그리고 큰 행사에서도 핵심은 좀 더 많은 일꾼들과, 학우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가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자봉단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창조적인 고민으로 학우들의 가슴에 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연세 총여에서 “성폭력 빨래 널고 가기”라는 행사가 가슴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우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겠습니다. 노력하다보면 섬광이 머리를 스치기도 하지 않을까요 ^^;; 안되면,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창조적 모방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 2. 조직사업 -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단위의 실질적 성과와 아쉬움

우리 조직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을 만날 시간이 보장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체의 문제도 큼니다만,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살았구...에...웅...=.=)

구체적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새터, 딸기나무, 달해, 그 밖에 친분이 있는 개인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함께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기나무의 경우에는 이제 커나가는 모임이고 물론 많은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지만,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행사를 준비했던 것은 1학기의 반성폭력 공청회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학내에서 여성주의에 눈을 돌리고자 하는 이 중에 가장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이들입니다. 이들을 가장 먼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정말 다양하게 구성된 학우들과 함께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중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학우들과의 만남도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모임들은 대중조직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요구로 이루어진 소모임(구체적인 대중)이므로, 우리가 좀 더 많은 학우들(불특정 다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단위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일꾼들조차도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두리로 묶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단위 학생회와의 간담회, 교양, 일상적인 만남(하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학생회가 처음 생겨났던 시기의 오류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언제나 학생회 일꾼들과 여학생회 사업을 함께 풀어내려는 노력(조직화되지 않는 것이 예상되더라도 제안합시다-핵심의 참여 유도-/총학생회 귀동냥이 아니라 단위 상황을 직접 파악합시다)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관광대, 정경대, 한의대 단위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대와 정경대에 여성학 소모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사람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새터와 딸기나무를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올해는 체계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ㅠㅠ

## 3. 연대 투쟁 - 연대회의... 농활, 기활 평가 ( 간단하게!)

연대회의는 계획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만큼, 얻었던 것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참가하지 못했던 것, 학우들에게 성과를 알려내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연대회의를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 우리 학교 상황(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에서 우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대회의가 제기된다면 활동의 상을 충분히 고민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농활은 남원에 여농이 없는 상황을 어찌하지 못하고 순창에서만 활동을 가져갔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농활 역시 1년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농활이 닥칠 때마다 준비한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농활 성폭력에 대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에 확실히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몰라요..ㅠㅠ 여성해방연대에서 준비하고 있던 것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여성농민회와는 어떠한 연대를 할 수 있을지 잘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성농민회의 활동상(농민회와의 차이?)과도 연관된 것 같습니다....이제 친분을 쌓았으니 사업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먼저 고민해서 이야기를 꺼내야 여성농민회의 자부단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니들이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지촌 활동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대중적으로 벌여내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일기를 써서 인터넷과 신문으로 알려내기는 했지만, 준비단계에서 아는 몇몇 사람에게만 제안했던 것은(참가인원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그래도.....)문제가 아닐까요. 기활 교양을 단위 학생회에 공식으로 제안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그리고 새움터 물품판매를 생각날 때마다 했지만, 물품판매를 하는 의의를 항상 충분히 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취업워크샵이었는데 여성노조와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대사업은 연대사업만 가지고도 사업계획을 길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이 연대사업인 것 같습니다. 연대사업부장을 두어서 여성단체(예 - 여성해방연대)와의 연대도 가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연대를 좀더 계획적이고 책임있게 하기 위해서.....

#### 4. 자주 경희에서의 총여학생회가 가진 (여)학우 장악력 / (여)학생회 장악력

- 평가와 더불어, 내년에 부족한 지점이나 계승할 지점이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위에 말한 것들과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생략..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학우들의 관심 범주에 약간 있긴 하지만, 내게 절실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여학우는 거의 없다....ㅡT 생리대 자판기와 여학생 휴게실 이외에 총여학생회를 학우들이 느낄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 대 정/부 역할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 대표자를 결의하는 후보자로서, 자신이 내년에 맡을 정/부 역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나서는 혁신 지점이나, 계승할 지점들 정리해오기~!